

'전북특별자치도 백년대계' 목표 설파

김관영 도지사, CEO 지식향연서 새로운 변화·혁신·성장 계획 소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8일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개최된 '2024년도 제3회 CEO 지식향연'에서 직접 강연에 나서서 등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전주·익산상공회의소, 메인비즈협회 전북연합회가 주최하는 CEO 지식향연은 급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와 소상공인을 초청, 경영마인드 제고와 기업 간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자리다.

올해 6월 군산에서 열린 지식향연에 이어 두 번째 강사로 나선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의 주제로 새로운 변화와 혁신, 성장과 발전하는 원대한 계획을 소개하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희망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8일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열린 '2024년도 제3회 CEO 지식향연'에 직접 강연에 나서고 있다.

미래 설계를 위한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

회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한 도내 중소기업 CEO 및 소상공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기회 발전 특구에 지정 선정되는 등 전북자치도의 농생명,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등 지속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한 백년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힘과 뜻을 모아주시길 당부한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강연에 이어 '전북자치도 백년대계'의 원대한 꿈을 펼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만호 기자

익산 'NS푸드페스타' 열린다

9월 26~27일 1억원 상금 요리 경연 등 식품 축제 개최

익산시와 (주)하림계열사인 NS홈쇼핑이 공동 주관하는 NS푸드페스타가 오는 9월 26~27일 이틀간 함열읍 익산 제4산업단지 하림퍼스트키친에서 펼쳐진다.

NS푸드페스타는 익산시와 민간 기업, 학술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거버넌스형 식품 축제다. 식품산업에 매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품산업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축제에는 총 1억 원 상당의 상금이 걸린 전국 최대 요리 경연을 비롯해 조리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영세프 캘린지, 지역 식재료를 활용해 식품 전공 대학생들이 경연을 펼치는 프레쉬박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이번 축제에서는 식품스타트업 경진대회와 식품기업 분석대회, 다이로움 취업박람회가 함께 열린다. 식품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이 분야에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해 젊은 참가자 비중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내부행사장 규모를 확대하고 해당 공간에 상생식품관을 기획했다. 익산시 대표 농특산물을 시식, 홍보, 판매할 수 있어 익산 식품산업의 홍보·발전의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익산 대표음식점인 대물림업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은 "익산은 국내 유일의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 대기업 하림이 위치한 명실상부 대표 식품산업도시"라며 "이번 NS푸드페스타가 식품산업도시 익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야간관광으로 체류형 관광 육성 도모

전북자치도, 정책세미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야간관광을 통해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8일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야간관광을 통한 전북관광 활성화 방안 도모'를 주제로 야간관광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관광전문가, 시군 관계자, 문화관광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전북 관광의 미래를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 목표는 야간관광을 통해 전북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체류일 수를 늘리고, 주·야간 관광콘텐츠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다.

1부에서는 양영관 소장(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이 '새로운 관광, 더 특별한 관광 전북 여행'을 비전으로 전북자치도 야간관광 진흥계획을 발표했다.

양 소장은 전북의 주요 관광지에서 체험형 이벤트와 조명 연출을 통해 야간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MZ세대를 겨냥한 꾸러미 투어와 실감형 야간문화공연 등 20개의 전략과제를 제시하며, 전북의 야간관광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2부에서는 신재운 팀장(사단법인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 경남 통영시와 경북 성주군의 사례를 바탕으로 '야간관광 국내외 사례 및 지자체 적용 방향'을 발표했다.

신 팀장은 전북자치도가 야간관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동적 프로그램의 균형과, 핵심 사업지와 보완 사업지 간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여행 플랫폼인 VITORD와 아시아 최대 여행 액티비티 플랫폼 KLOOK, KKday를 활용한 홍보마케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이 밝은 조명만을 강조할 경우 빛 공해로 이어질수 있음을 경고하며, 젊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설 운영시간, 기상 조건, 접근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콘텐츠 발굴과

시군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진관 전북자치도 관광산업과장은 "이번 정책 세미나가 전북의 관광정책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며,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방소멸 위기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야간관광 체험 콘텐츠를 발굴하고, 주요 관광지에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등 지방소멸 기금을 활용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전주 야간관광 특화 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맛있는 심야극장, 팔복예술공장 야간경관 개선 사업, 클럽더 8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관광 유치를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농아인체육대회' 30~31일 임실서 개최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임실군 일대에서 제44회 전북특별자치도농아인체육대회가 열린다.

매년 열리는 농아인 체육대회는 한국농아인협회 전북특별자치도협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협회임실군지회가 주관한다.

이번 대회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화합하고, 건강한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에는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지회에서 약 1,200명의 참가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축구, 디스크골프, 볼링, 배드민턴, 한국, 숫자

판 던지기, 탁구, 슐런 등 총 8개 종목에 걸쳐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경기는 임실군 다목적체육관과 전주 라온라크 볼링장에서 진행되며, 첫날에는 배드민턴, 슐런, 탁구, 볼링의 사전 경기가 열리고, 둘째 날에는 주요 예선과 종목별 결승전이 펼쳐진다.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개회식은 8월 31일 오전 11시, 임실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다. 개회식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임실군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대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저소득 장애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며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보금자리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은 28일 추석 경을 앞두고 군산시의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거환경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한

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내 안전 손잡이 설치, 경사로 보수, 화장실 개조 등 맞춤형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44억7,000만원이 투입되어 도내 1,215 가구 주거환경이 개선됐으며, 올해는 8억원을 투입해 206가구의 주거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농어촌 지역에



한정되었던 지원 범위를 도시 지역으로까지 확대해 더 많은 장애인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도움을 받은 한 주민은 "이번 주택 개조 지원 덕분에 생활이 훨씬 편리해졌다"며, "특히 안방과 화장실

이 크게 개선되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겨울철이 시작되기 전인 11월까지 모든 개조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저소득 장애인들이 겪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의 기본적인 복지"라며, "앞으로도 도내 모든 장애인 가구가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5기 수료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5기 수료식' 및 7기 오리엔테이션을 28일 오후 2시에 스마트팜혁신밸리 전북스마트농업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혁신산업국장을 비롯해, 5기 수료생, 7기 신입생, 6기 재학생 등 120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총 20개월 동안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생들은 농업 기초부터

정보통신기술,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을 2개월 동안 배우고, 이후 6개월 동안 현장에서 직접 종사 과정에서 수확까지의 전 과정을 실습하게 된다. 또한, 1년 동안은 독립적으로 작물 생육을 관리하며 실제 농업 경영을 경험할 수 있다.

전북 청년창업보육 5기 수료생은 '22년에 3.7: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교육생으로 52명 중 49명이 수료해 94%의 수료율을 보였다. /이만호 기자

장수군 공고 제2024-86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도로구역결정일로부터 ~ 2030. 12. 31.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도로 명칭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백운~천천(1단계) 지방도 확포장공사	지방도 제726호선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일원	• 연장 : 2.5km • 폭원 : 9.0m (확포2차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장수시 환산구 호자로 22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및 면적

- 지방도726호선 중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2.5km) 구간으로 지방도 단선구간 도로를 신설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접근성 개선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관광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하고자 함.

3.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 개계 생략(열람장소 비치)

4. 열람 및 의견서(이의신청) 제출

- 기간: 신문 게재일로부터 15일간
- 장소: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 의견제출(이의신청) 방법: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작성·제출(열람장소 의견서 비치)
- 기타 문의사항: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063-350-25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한 주소나 거주 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본 공고를 갈음함.

2024년 8월 14일 장수군 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